

Morning Meeting Brief

THE GLOBAL / Global Daishin View

[Global Daishin View] 2026년 6월 1주차

- 미국-이란 종전 협상 타결 임박. 6월 첫째 주, 위험자산 선호심리 견인
- 中 유니트리, 6.1일 과창판 상장 심사 개시. 美 드론주, 트럼프 행정부 지원 기대. BXDC, 블라인드폴 데이터센터 리츠 등장
- 이번 주 해외 투자 포커스: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2807-HK), [미국주식] 드론주, [글로벌리츠] BXDC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글로벌리츠 김다운

Macro

한국 수출: 더 뜨거워졌다

- 5월 일평균 수출액 40억 달러 돌파, +60.7%YoY 증가로 모멘텀 더 확대
- 폭발적인 AI 수요와 석유류 수출 단가 상승이 수출 호조 견인해
- 제조업 수요 전혀 식지 않고 있어, 하반기 매크로 환경 우려할 필요 없음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ADR 바닥권과 KOSPI 고점권, 반도체·피지컬 AI의 주도주 랠리

- ADR 급락에도 코스피 강세, 주도주의 실적, 수출 모멘텀 유효
- 젠슨 황 방한 일정 앞두고 피지컬 AI,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부각
- 주도주 랠리 속 업종별 차별화 뚜렷, 코스닥 내 로봇 업종 급등

이경민. kyo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New&Issue] 반도체업: 용기를 더 내셔도 됩니다

- 메모리반도체는 여전히 글로벌 Tech 내 가장 저평가된 산업.
- 힘의 질서가 변화, 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 상향. 적극적 매수전략 유효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NDR 후기] 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Down, 신규 딜 가능성 Up

- 미국 핵심 특허 리스크 완화 확인
- 신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시화
- 키트루다 SC 판매 순항, 마일스톤 유입 기대

홍가혜. kahye0.hong@daishin.com

THE GLOBAL

Global Daishin View

글로벌전략 문남중
 신흥국전략 문건우
 미국주식 서영재
 글로벌리츠 김디은

2026년 6월 1주차

- 미국-이란 종전 협상 타결 임박. 6월 첫째주, 위험자산 선호심리 견인
- 美 드론주, 트럼프 행정부 지원 기대. BXDC, 블라인드폴 데이터센터 리츠 등장
- 주식 포커스: Global X China Robotics(2807-HK), 드론, 블랙스톤 디지털 인.(BXDC)

[글로벌전략] 미국-이란, 종전 협상 타결 임박. 6월 첫째 주, 미국 증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 예상

전쟁 종전이 공식화될 경우, 금리 및 달러 하락을 통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두드러질 것. 높아졌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장기금리에 내재되어 있는 기간프리미엄도 낮출 것. 다만 종전이 공식화되더라도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지표로 통해 확인할 것. 이를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및 금리 인상 필요성을 요구하는 중앙은행 내 소수 의견 대두는 증시의 상승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신흥국전략] Global X China Robotics and AI ETF(2807-HK):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 본격화에 상승 기대

5.31일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그룹과 중국 대표 협동 로봇 제조업체 선전시 웨장테크놀로지의 전략적 협력 협약 공식 체결 발표, 제품, 마케팅, 판매 채널 등 3대 영역에서 협업 진행 및 상용화 공동 추진. 6.1일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가 상하이증권거래소 과창판 상장 심사 개시. 심사 통과 시 중국 본토 A주에서 로봇 1호로 상장 예정. 상장설명서에 따르면 42억 위안을 조달할 예정으로 스마트 로봇의 1) 모델 연구 개발, 2) 본체 개발, 3) 제품 개발, 4) 제조 기지 구축 등 4대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

[미국주식] 트럼프 행정부, 자국내 드론 기업 지원 방안 검토

트럼프 행정부, 자국내 드론 생산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기업 지원 방안 검토 중. 미 국방부는 지원 대상으로 퍼포먼스드론웍스, 언유저얼머신스, 네로스테크놀로지스 등 검토. 현대 전쟁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무인·자율 전투 체계로 이동, 군사비 지출 구조에 변화 발생. 미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1조 5,000억달러 규모 국방예산안 가운데 드론 및 대(對)드론 대응 체계에 750억달러를 요청. 이는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방산 프로그램 예산 증가에 해당

[글로벌리츠] 블랙스톤 디지털 인프라 트러스트(BXDC): '블라인드폴' 데이터센터 리츠 등장

5.14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공모가 20달러 대비 +8% 프리미엄 형성. 시총 22억 달러 수준. 아직 보유 자산이 없는 블라인드폴 리츠로, 조달한 자금으로 신축·안정화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매입하는 구조. 기존 데이터센터 리츠가 개발과 운영을 병행하는 데이터센터 플랫폼이라면, BXDC는 장기 임차인 확보된 우량자산을 매입하는 인수형 리츠. 실적이 없어 P/FFO 비교는 어려우나, 250억 달러 파이프라인과 QTS, AirTrunk 운용경험은 강점 → 향후 밸류에이션은 자산 편입 속도와 취득수익률 입증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

Macro

Economist 이정훈, CFA
jhoon.lee@daishin.com

한국 수출: 더 뜨거워졌다

- 5월 일평균 수출액 40억 달러 돌파, +60.7%YoY 증가로 모멘텀 더 확대
- 폭발적인 AI 수요와 석유류 수출 단가 상승이 수출 호조 견인해
- 제조업 수요 전혀 식지 않고 있어, 하반기 매크로 환경 우려할 필요 없음

5월 일평균 수출 60% 넘게 급증

한국 수출이 조금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5월 수출은 +53.2%YoY 상승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2.8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4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전년비 +60.7% 증가했다. 데이터 부족으로 일평균이 아닌 월간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6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1970년대가 마지막이다. 5월 수입은 +20.8%YoY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269.4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폭발적인 AI 수요와 석유류 수출 단가 상승 효과

5월 일평균 반도체 수출은 +182% 증가해 2월 +201% 증가 이후 좀처럼 모멘텀이 꺾이지 않고 있다. 컴퓨터는 4월 +515% 대비로는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310%라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 IT 외 수출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및 화학 제품 수출의 단가가 급등한 영향을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로 보면 최근 수출 모멘텀이 가장 양호한 품목은 화장품으로, 2개월 연속 30%대의 증가율을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다소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59%), 중국(+80%), 아세안(+58%) 등은 IT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유럽의 경우 4월부터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국/중국과 달리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큰 유럽 경제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기는 커녕 더 뜨거워지는 제조업, 종전 가능성 높아져 하반기 우려 낮아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이 거의 2개월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을 제외하면 오히려 모멘텀이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 5월 미국 시카고 PMI는 강력한 수요 회복 속 62.7로 급등해 2022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간 부진했던 유럽이나 일부 신흥국 쪽의 수요도 회복될 수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별로 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들이 당장 AI 투자를 중단할 위험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주식시장이야 매크로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뒤쳐지기도 하지만, 일단 하반기까지는 매크로 환경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ADR 바닥권과 KOSPI 고점권, 반도체·피지컬 AI의 주도주 랠리

- ADR 급락에도 코스피 강세, 주도주의 실적, 수출 모멘텀 유효
- 젠슨 황 방한 일정 앞두고 피지컬 AI,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부각
- 주도주 랠리 속 업종별 차별화 뚜렷, 코스닥 내 로봇 업종 급등

ADR 급락에도 코스피 강세, 주도주의 실적, 수출 모멘텀 유효

코스피 내 쏠림 현상 심화. ADR(상승 종목 비율, 20MA)은 47.88%로 20년 3월 19일 40.24% 이후 최저치를 기록. 반면 코스피는 장 중 8,800선을 돌파하며 강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AI 수요가 견조하다고 강조. 또한 베라 루빈의 양산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4 탑재를 언급하며 반도체 투자심리 고조.

5월 한국 수출은 877.5억달러로 12개월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특히 반도체 수출은 169.4% 급증하며 견조한 반도체 실적 모멘텀을 증명. 한편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비 상승 탄력이 둔화됐던 만큼, 급등세를 시현.

반도체: 삼성전자(+10.1%), SK하이닉스(+1.3%), 이수페타시스(+7.9%)

젠슨 황 방한 일정 앞두고 피지컬 AI,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 부각

젠슨 황 CEO는 4일 한국으로 입국해 5일부터 최태원 SK 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불참한다는 소식. 엔비디아와 네이버 클라우드 간 협력 소개로 시장의 관심이 확대. 여기에 네이버 1784 사옥 방문이 유력해지며 AI 인프라, 서버인 AI 등 협력 기대감 부각.

피지컬 AI / 엔비디아 협력: LG전자(+29.9%), 두산로보틱스(+30.0%), LG씨엔에스(+26.3%), 삼성SDS(+21.1%), NAVER(+16.0%), LG(+13.1%)

주도주 랠리 속 업종별 차별화 뚜렷, 코스닥 내 로봇 업종 급등

코스피는 주도주 랠리 지속되는 상황. 중동 협상 지연에 따른 실망 매물 출회와 최근 급락 업종의 기술적 반등이 엇갈리며 업종별 차별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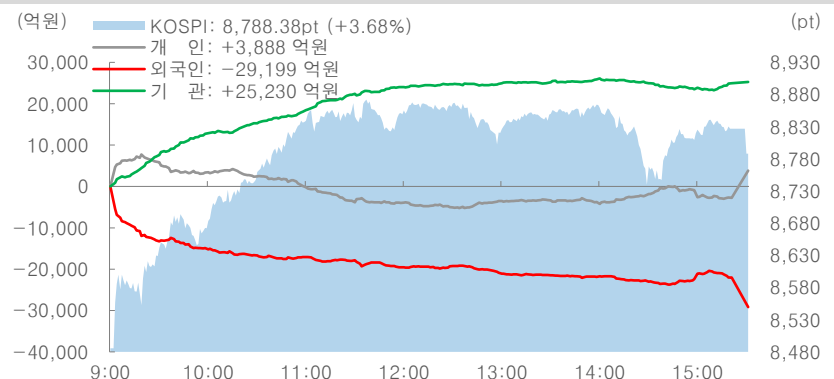
전력기기: LS ELECTRIC(+10.6%), 대한전선(+4.7%), 효성중공업(+3.4%)

건설: 현대건설(-5.5%), 대우건설(-7.4%), GS건설(-5.4%), 삼성E&A(-4.9%)

코스닥에서 피지컬AI 모멘텀에 따라 로봇 업종 급등. 그외 시장에서 소외되며 약세.

피지컬 AI: 레인보우로보틱스(+12.4%), 로보티즈(+23.7%), 로보스타(+30.0%)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반도체업

용기를 더 내셔도 됩니다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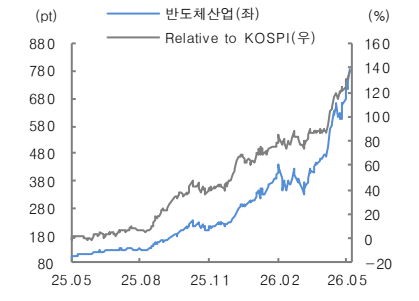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삼성전자	Buy	560,000원
SK하이닉스	Buy	3,400,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8.9	82.8	276.8	673.4
상대수익률	26.8	29.9	68.1	137.4



- 메모리반도체는 여전히 글로벌 Tech 내 가장 저평가된 산업.
- 힘의 질서가 변화. 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 상향. 적극적 매수 전략 유효.

AI 주식 중 가장 저평가

이익 전망과 Target P/B 상향 분을 반영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56만원, 340만원으로 상향. 1) 날이 극대화되는 AI 경쟁에 대한 FOMO (Fear of Missing Out)와 강제적 메모리반도체 공급의 Discipline 속, 메모리반도체 가격 곡선은 보다 날카로워질 것이며, 2) 성과급과 주주환원 정책의 변화가 이끌 중장기 Capex Discipline의 강화가 장기계약과 사이클의 가치를 드높일 것. 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증익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현 구간을 적극적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삼성전자, 고민할 이유가 없다

당사는 지난 하반기 전망 자료 (2026년 5월 22일 반도체: 새로운 역사의 시작)를 통해 파업이 시스템 Risk가 아님을 강조. 주가의 De-Rating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 적극적 매수 접근 필요.

1. 메모리반도체, 재차 증명된 관록의 힘

응용처별 맞춤형 가격 전략 속, 이익의 제고가 지속. 경쟁사 대비 우월한 가격 상승률 (2Q26 ASP: 범용 DRAM q-q +55%, NAND q-q +60%)이 비용 증가 영향 (성과급 총당금 추가 인식, 5월부터 진행 추정)을 성공적으로 상쇄할 것. 이를 반영하여, 2Q26 전사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91조원으로 상향.

2. 파운드리 부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2nm 신규 수주를 기반으로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제고 전망. 모바일 AP에서 CPU, ASIC, Auto 등으로의 제품 다각화를 예상. 전세계 유일한 반도체 Total Solution Provider로의 입지 강화 속,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강화될 것.

3.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현금 흐름

2026년 연간 창출될 FCF는 300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 재원의 활용 방향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M&A, 설비투자 등 다방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

1) 자사주 매입 재개: 성과급 구조의 변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속, 추가 자사주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변화.

2) 주주환원과 M&A: 현금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수준의 주주환원에 더하여 M&A (세트 경쟁력 제고, 신사업), 비메모리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 투자 강화 등을 기대 가능한 환경.

SK하이닉스, 초호황에 주주환원을 더하다

초호황 속, 순현금 100조원 목표는 조기에 달성될 것. ADR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및 특별배당 등에 재원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 초호황의 가치와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것.

알테오젠 (196170)

홍가혜

이채리 RA

kahye0.hong@daishin.com

cherry.lee@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00,000

유지

현재주가

366,000

(26.06.01)

제약업종

특허 리스크 Down, 신규 딜 가능성 Up

- 미국 핵심 특허 리스크 완화 확인
- 신규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시화
- 키트루다 SC 판매 순항, 마일스톤 유입 기대

Key Takeaways

다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알테오젠 경영진 및 IR과 NDR을 진행함 (5/26-5/28).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①특허분쟁 현황, ②추가 라이선스 계약 전망, ③키트루다 SC 판매 현황, ④ALT-B4 적용 타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으로 확인됨. 올해 초, 일부 파트너사 로열티율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수급 소외가 겹치며 동사 주가가 부진했으나, NDR을 통해 특허 리스크 완화와 추가 라이선스 계약 모멘텀 가시화를 확인함

미국 내 핵심 특허 리스크 완화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동사 파트너사 MSD가 경쟁사 Halozyme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Halozyme 핵심 특허(600)를 특허불능 판단했고(5/12), 미국 특허청은 Halozyme이 동사 공정특허에 제기한 무효심판(IPR)도 심리 개시를 기각함(5/15). 두 건 모두 우호적으로 종결되며 미국 내 핵심 IP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됨.

추가 라이선스 계약 체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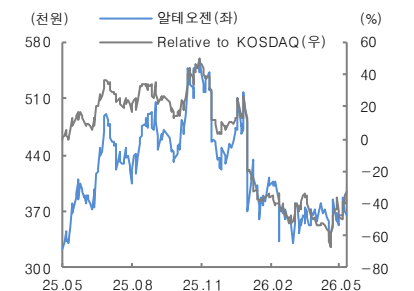
올해 GSK, Biogen 2건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됐으며, 기업 측에 따르면 이후 논의 파트너사가 증가해 현재 10개 이상의 잠재 파트너사와 MTA 기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다수 파트너사와의 논의가 구체화 단계에 있어 올해 중 추가 딜 클로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최근 딜은 품목당 ~\$300M+mid-single digit 로열티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GSK \$285M/1Product, Biogen \$579M/2Products), 다수 Product 묶음 계약 시대 형화 여지가 있음. 단일클론항체-이중항체-ADC 등 다양한 모달리티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적용 범위 확대가 기대됨.

키트루다 SC 초기 판매 on-track

키트루다 SC(Keytruda Qlex)의 미국 초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세일즈 마일스톤의 본격 유입이 기대됨. '25년 9월 출시 이후 1Q26 매출 \$128M 기록(MSD 매출 기준). Symphony health에 따르면 4월 WAC 처방액은 \$88M으로, 4월 J-code 적용 이후 MoM +76% 증가하며 점유율 확대 중. 동일 타겟(PD-1) 약물인 Opdivo SC 대비 SC 전환율이 빠름(4.1% vs. 2.8%). 이에 따라 동사가 MSD로부터 수취할 잔여 세일즈 마일스톤 \$1bn은 3~4년 분할 수령이 예상되며, 2Q26부터 인식 개시 전망. 이외에도 Dupixent, Imfinzi, Enhertu, Jemperli SC 등이 2029~2030년 순차 상업화되면 연간 로열티 1조 원 이상 수취가 기대됨

KOSDAQ	1050.03
시가총액	19,61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2.91%
자본금(보통주)	2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59,000원 / 325,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454억원
외국인지분율	14.51%
주요주주	박순재 외 4인 20.33% 형인우 외 2인 5.0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7	-10.2	-32.5	10.9
상대수익률	12.8	2.0	-40.7	-22.4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